

“매치 퀸 2연패”... 37살 지은희의 투혼

내일 LPGA 유일 매치플레이 티오프... 2연패 도전
고진영·코르다·리디아고 불참... 맏언니 신화창조 기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한국 선수 중 ‘맏언니’인 지은희가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그는 올해 LPGA 17년차로 37세다.

지은희는 25일(한국시간)부터 닷새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새도 크리크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밴크 오브 호프 매치플레이(총상금 150만 달러) 19억 5000만 원)에 출전한다.

LPGA 투어에서는 유일하게 홀 매치플레이 형식으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지은희는 지난해 결승에서 일본의 신에 후루에 아야카를 잡고 LPGA 투어 통산 6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9년 1월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 3년여만의 값진 우승이었다. 특히 지은희는 우승 당시 36세 17일로 한국 선수 LPGA 투어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지은희는 LPGA 투어 대회에서 상위권 성적을 자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 우승 외엔 한 차례 톱10 기록을 남겼고, 이번 시즌엔 7개 대회를 치르는 동안 5개 대회에서 컷을 통과해 3월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의 공동 11위가 최고 성적이다. 지난해 커그니전트 파운더스컵에 선 썬 탈락했다.

지은희로서는 좋은 기억이 깃든 매치플레이를 반등의 발판으로 삼을 만하다.

총 64명이 출전하는 이 대회에선 4명씩 16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위가 16강에 오르며, 이후엔 16강부터 결승까지 넉 아웃방식의 단판 승부가 이어진다.

지은희는 린 그랜트(스웨덴), 마틸다 카스트렌(핀란드), 매디 저리크(캐나다)와 조별리그 경쟁을 펼친다. 대진운은 비교적 좋은 편이다.

지은희를 필두로 한국 선수로는 신인 유해란, 김세영, 김아림, 안나린, 이정은 등이 이번 대회에 나선다. 유해란과 김아림이 같은 조에 묶여 프리다 시넬트(스웨덴), 린지 위버-라이트(미국)와 16강 진출을 다투고, 안나린-신지은, 이정은-홍예은 등도 조별리그에서 만나게 됐다.

23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위를 탈환한 고진영과 세계 2~3위인 벨리 코르다(미국), 리디아고(뉴질랜드)는 불참한다.

출전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선수는 시즌 2승을 거뒀던 4위에 올라 있는 ‘보트 피플’의 후예인 릴리아 부(미국)다. 부는 지난해 이 대회 4강전에서 후루에에게 3-4위전으로 밀린 뒤 앤드리아 리(미국)를 제치고 3위에 오른 바 있다.

당시엔 LPGA 투어 우승이 없던 부는 올해 메이저 대회인 세브론 챔피언십을 포함해 2승을 거뒀던 올해의 선수 포인트(94점)



미국 뉴저지주 클리프턴에서 12일(한국시간) 열린 LPGA 커그니전트 파운더스 컵 대회 1라운드 17번 홀에서 티샷을 날리는 지은희. AP=연합뉴스

와 상금(111만3878달러) 1위, CME 글로벌 레이스에선 고진영(1366.973점)에 이어 2위(1346.643점)를 달리고 있다.

앤드리아 리도 이번 대회에 출전해 실목 을 버리며 대니엘 강, 엘리슨 리(이상 미국) 등 교포선수들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브룩 헨더슨(캐나다), 켈린 부티에(프랑스) 등도 정상에 도전할 만한 선수로 꼽힌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고진영 ‘고진감래’... 7개월 만에 세계랭킹 1위

오초아에 이어 146주간 선두... 벨리 코르다에 0.01점 차 앞서

한국 여자골프의 에이스 고진영이 7개월 만에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자리를 되찾았다.

고진영은 23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 2위에서 1위로 뛰어 올랐다.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가 열리지 않았으나 고진영은 랭킹 포인트 8.26점을 기록해 8.25점의 벨리 코르다(미국)를 0.01점 차로 제쳤다. 둘이 랭킹 자리

를 맞바꿨다.

지난주에는 코르다가 8.40점으로 1위, 고진영은 8.38점으로 2위였다.

고진영이 세계 랭킹 1위가 된 것은 왼손목 부상에 시달리던 지난해 10월말 이후 7개월 만이다. 이후 여자 골프 세계 1위 자리는 아타아 티피쿰(태국), 코르다,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고가 번갈아 차지했다.



15일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고진영. AP=연합뉴스

고진영은 이번 시즌 10개 대회가 열린 LPGA 투어에서 3월 HSBC 월드챔피언십, 15일 파운더스컵 등 2승을 거뒀다.

2018년 1월 LPGA로 건너간 고진영은 2019년 4월에 처음 세계 1위가 된 뒤 이번 주까지 총 146주간 세계 1위를 유지, 158주의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은퇴) 다음으로 오랜 기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고진영의 동갑내기 김효주가 10위에 올라 고진영과 함께 한국 선수 2명이 10위 내

에 자리했다. 지난해 LPGA 챔피언십 우승자인 전인지는 그대로 12위를 유지했다. 리디아고 3위, 호주 교포인 이민지는 5위를 각각 기록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활약 중인 선수 중에는 박민지가 27위로 랭킹이 가장 높았다. 21일 강원도 춘천에서 끝난 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성유진은 104위에서 19계단 오른 85위가 됐다. 성유진은 4월 초 135위였다가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 준우승으로 107위까지 상승했고, 이번에는 KLPGA 투어 대회를 제패하며 10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류현진, 재활 순항 7월 복귀에 ‘주목’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속해 있는 류현진이 부상을 털고 복귀 과정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

23일(한국시간) 토론토 팬 사이트 ‘블루버드 밴더’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의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열리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동행했다.

한동안 구단 스프링 캠프 시설이 있는 플로리다주 더니든에서 재활에 집중해왔는데 이제 선수단 동행에 나선 것이다.

토론토 구단도 공식 트위터에 류현진이 트로피카나 필드에서 ‘브이(V)’ 포즈를 하는 영상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친구”라고 적었다.

블루버드 밴더는 “류현진은 불펜 투구를 소화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등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복귀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 아나운서 헤이즐 메이도 자신의 트위터에 “아직 복귀 시간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재활 과정을 잘 진행하고 있다”는 존 슈나이더 토론토 감독의 말을 전했다.

류현진은 이날 불펜 투구를 거쳐 추후 라이브 피칭, 실전 투구의 순서를 밟아 7월 중순 마운드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 앳킨스 토론토 단장은 16일 “류현진과 그린이 다음달 타자들을 상대로 실전에서 공을 던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류현진은 지난해 6월 왼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 존 수술)을 받고 2022시즌을 일찌감치 접은 채 재활에 전념해왔다.

김명준 기자 mjkim@skyedaily.com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AFP-게티이미지=연합뉴스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